

# 화끈한 방망이로 안방서 '매직 넘버' 줄인다

### LG·한화·키움과 6연전...김선빈 지난주 '6할'·박찬호·김도영 '4할' 양현종 3일 LG·8일 키움전 선발·장현식 가세로 1위 굳히기 '속도'

## TIGERS 타이거즈 전망대

'달구벌 빅매치' 승자가 된 KIA 타이거즈가 안방에서 1위 굳히기에 나선다.

지난 주말 2위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경기에서 2승을 모두 챙겨온 KIA는 3일부터 홈에서 6연전을 갖고 연승 잇기에 나선다.

KIA는 3일 LG 트윈스를 시작으로 4·5일 한화 이글스, 6·7·8일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하게 된다.

KIA는 뜨거운 주말 2연전 분위기를 이어 우승 결승선을 향해 달린다.

지난주 주중 안방에서 SSG 랜더스를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쟁긴 KIA는 하루 휴식 뒤 전개된 삼성과의 주말 2연전에서 모두 역전극을 연출했다.

8월 31일 경기에서는 7개의 홈런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15-13 승리를 거뒀다. 박찬호와 최형우가 나란히 홈런 포함 3안타 행진을 하며 5타점씩 책임졌다. 최형우는 이날 40세 8개월 15일에 100타점을 돌파하면서 이대호(40세 3개월 12일)의 최고령 100타점 기록을 갈아치웠다.

1일 경기도 극적이었다.

제임스 네일의 대체 외국인 선수인 에릭 스타우트가 KBO 데뷔전에 나서 박병호에게 연타석 홈런을 맞는 등 4이닝 4피안타(2피홈런) 2볼넷 6탈삼진 5실점의 아쉬운 성적표를 냈지만, 경기의 승자는 KIA였다.

김기훈으로 허리 싸움을 전개한 KIA는 0-5를 6-5로 뒤집고 만원 관중을 앞세운 2위 삼성을 6.5경기 차로 밀어냈다.

8월 27일 SSG전 부상 복귀 타석에서 홈런포를 날린 최형우와 함께 김도영도 눈길 끄는 홈런을 이

어가면서 KIA의 타선은 든든하다.

김도영은 8월 28일 SSG전에서 송영진을 상대로 33번째 홈런을 날리면서 1997년 이승엽(32개·만 21세 1개월)을 넘어 만 20세 10개월 26일 최연소 최다 홈런 주인공이 됐다.

김도영은 8월 29일 SSG전에 이어 1일 삼성 원정에서도 답장을 넘기면서 35홈런-36도루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주 김선빈도 조용히 13개의 안타를 수확하면서 0.650으로 주간 타율 1위를 기록했다. 나성범도 1일 홈런 포함 4안타를 쓸어 담으면서 0.467의 타율을 기록했고, 김도영(0.450), 박찬호(0.429), 최원준(0.429)도 주간 타율 '4할'을 장식했다.

뜨거운 타선의 흐름 속 마운드 움직임도 좋다.

KIA는 홈 6연전을 양현종으로 연다. 8월 27일 SSG전에서 우천 중단 뒤에도 마운드에 오르는 등 빗속에서 투구를 했고, 삼성에 약했던 만큼 1일 예정됐던 등판을 밀어 3일 LG전에 나선다. KIA는 노련한 양현종으로 8일 키움전까지 두 경기를 소화하게 된다.

여기에 옆구리 통증으로 8월 25일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장현식은 10일의 휴식이 끝난 뒤 다시 마운드에 가세하게 된다.

김기훈도 마운드의 조커로 떠올랐다. 1일 삼성전에서 3이닝을 완벽하게 막아주면서 역전승의 발판을 놓았다. 전상현의 흔들림 없는 활약 속 정해영도 세이브 단독 1위(28세이브)로 올라서는 등 마운드도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에릭 라우어와 에릭 스타우트 '에릭 듀오'가 적응을 끝내고 더 많은 이닝을 책임져준다면 결승선을 향한 KIA의 걸음이 더 빨라질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삼성과의 '빅매치'에서 연승을 지휘한 KIA 이범호 감독(오른쪽)이 양현종(왼쪽)을 앞세워 3일부터 시작되는 홈 6연전에서 '매직넘버' 줄이기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 제공>



유해란이 1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보스턴 TPC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FM 챔피언십 최종 4라운드에서 연장 접전 끝에 고진영을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연합뉴스

## 유 "GO"

### 영암 출신 유해란 LPGA FM 챔피언십 우승... 11개월만에 통산 2승

### 4라운드 8언더 고진영과 연장전 격돌서 승리... 상금 7억6000만원

'영암 출신' 유해란이 약 11개월 만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유해란은 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턴의 TPC 보스턴(파72·6598야드)에서 열린 FM 챔피언십(총상금 380만 달러)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9개를 쓸어 담고 보기는 하나로 막아 8언더파 64타를 쳤다.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가 된 유해란은 고진영과 동타를 이룬 뒤 이어진 1차 연장전에서 파를 지키며 보기에 그친 고진영을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 상금은 57만 달러(약 7억6000만원)다.

지난해 10월 월마트 NW 아칸소 챔피언십에서 LPGA 투어 첫 승을 신고하고 신인왕을 거머쥐었던 유해란은 11개월 만에 통산 2승을 달성했다.

아울러 유해란은 6월 메이저 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의 양희영 이후 2024시즌 LPGA

투어 한국 선수 두 번째 우승의 주인공이 됐다.

3라운드까지 2위에 2타 앞선 선두였던 고진영이 이날 전반까지 이글 2개를 앞세워 4타를 줄여 선두를 달렸으나 중반 들어 티샷이 흔들리며 리더보드가 요동쳤다.

고진영의 10번 홀(파4) 티샷이 풀스에 빠져 찾지 못했고, 결국 네 번째 샷 만에 그린에 올려 보기를 써내면서 유해란과 엘리스 코푸즈(미국)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다.

유해란이 12번 홀(파5) 버디를 속내내며 단독 선두로 나섰고, 이어 12번 홀에서 경기한 코푸즈도 버디를 잡아내 공동 선두를 이뤘다.

유해란은 15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절묘

하게 그린 경사에 태워 홀에 바짝 붙이며 버디를 추가, 다시 단독 선두가 됐다.

하지만 다음 홀(파3)에서 바로 유해란의 보기가 나왔고, 14번 홀(파4)에서 까다로운 중거리 버디 퍼트를 떨어뜨린 고진영이 공동 선두를 이뤘다. 티로 피의 향방은 줄곧 안갯속이었다.

마지막 조의 고진영이 15번 홀 그린으로 향할 때 기상 악화로 2시간가량 경기가 중단되고, 재개 이후에도 비가 내리는 변수 속에 유해란과 고진영 모두 타수를 더 줄이지 못하며 결국 연장전이 성사됐다.

18번 홀(파5)에서 열린 첫 번째 연장전 세 번째 샷으로 승부가 갈렸다.

유해란이 세 번째 샷을 그린에 안착시켰고 고진영의 샷은 약간 담겨져 그린을 넘어가 버렸다. 이어진 고진영의 4번째 샷은 그린을 타고 많이 흘렀고, 파 퍼트도 홀을 지나치며 결국 보기로 끝났다.

유해란은 침착하게 2퍼트로 마무리하며 신설 대회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다.

/연합뉴스



장애인 배드민턴 대표팀 유수영(왼쪽), 정재군이 지난 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트 드 샤퐀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배드민턴 남자 복식 WH1, 2등급 중국과의 결승전에서 서를복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강선희 보치아 동·유수영 배드민턴 은메달



패럴림픽에 출전한 광주·전남 선수단이 '효자종목'인 보치아와 배드민턴에서도 메달을 추가했다.

광주 보치아 강선희(한전KPS)가 2일 사우스 파리 아레나1에서

치러진 여자 개인 BC3 동메달 결정전에서 이바니 카라루(브라질)에 4연드 합산점수 7-2(2-0-3-0-2-0-0-2) 승을 거뒀다.

유엔에게 1-4(0-1-1-0-0-2-0-1)로 패해 동메달 결정전을 치르게 됐다.

척수장애의 강선희는 이번 대회부터 뇌성마비가 아닌 선수의 출전이 가능해지면서 패럴림픽 첫 출전의 기회를 잡았다.

지난 2022 항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페어 1위 등에 올랐던 그는 정호원(강원장애인체육회)과 호흡을 맞추는 BC3 페어 종목 금메달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다.

한편 한국은 1988년 서울 대회 정식 종목 채택 이후 9연속 금메달을 획득한 보치아 강국이다.

이번 패럴림픽을 통해 보치아 10연패를 노리는 한국은 남은 BC1·BC2 팀 경기와 BC3 페어 경기에서 금빛 사냥에 나선다.

첫 패럴림픽에 나선 전남 유수영(WH2·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2일 파리 포트 드 라샤렐에서 열린 배드민턴 WH1-2 남자 복식 결승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유수영-정재군(WH1·울산중구청)조는 지난 2020 도쿄 대회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마이젠평-취쯔모(중국)조에 세트 스코어 0-2(10-21 12-21) 패를 당했다.

한국은 지난 1일 치른 4강전에서 마쓰모토 다쿠니-나가시마 오사무(일본)조를 세트 스코어 2-0(21-12 21-12)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지만 중국을 상대로 본전 끝에 2위를 기록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